

중국어 회화 동호회
‘니하오, 둥구’

努力学习汉语，加油！

nǚ lì xuéxí hànyǔ, jiāyóu
누리 스웨시 한위 지야오

열심히 해요 중국어, 화이팅!

“주어진 업무만 잘해서는 인생이 너무 무료하다. 우리는 삶을 더 풍요롭고 알차게 가꾸고 싶어 중국과 중국어 회화에 빠져든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광주시 동구청 보건소 2층 재활치료실은 중국어 회화 동호회방으로 바뀐다. “니 하오(안녕하세요), “뚜어샤오치엔? (가격이 얼마예요)” 등 중국어 회화가 흘러나와 오가는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중국어 회화를 배우는 주인공은 바로 15명의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니 하오, 둥구’라는 중국어 회화 동호회. ‘니하오, 둥구’가 결성된 것은 2006년 3월. 주 5일제가 본격화되면서 직원들 사이에 이렇게 시간만 흘러보낼 것인가라는 고민과 여가생활을 알차게 꾸리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동호회가 꾸러졌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홍콩과 대만, 상해에서 2년 가까이 회사원 생활을 하고 온 총무과 염청우(35)씨가 강의를 맡기로 나서면서 ‘니하오, 둥구’의 결성은 속도가 붙었다.

여기에 구청 조희시간마다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선 업무 이외에 외국어, 음악, 스포츠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유태명 동구청장의 격려도 이들의 ‘중국어 회화 욕심’을 자극했다.

이들은 자체 구입한 ‘신광량 중국어’를 교재 삼아

염청우씨가 선창하면 따라하는 식으로 강의도 하고, 가끔은 관내 중국인 유학생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중국어 회화 실력을 키우고 있다.

회원들은 또 회식을 할 때도 회교가 운영하는 식당을 일부러 찾아가는 등 중국어 회화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고 노력했다.

외국인만 보면 괴할 구실을 만들기 일쑤였던 회원들도 해가 거듭하고 연습량도 늘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 이제 중국인을 보면 ‘니 하오’라며 밝게 인사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갖췄다.

매해 광주국제 교류센터에서 주관하는 ‘외국인의 밤’이라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고, 광주시 관공구에 있는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를 찾아 중국인을 만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업무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주 시간을 내기 힘들지만, 고국을 떠나 광주에 온 유학생과 이주노동자를 찾아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고향 생각에 젖어드는 그들의 말벗이 돼 주는 것도 회원들은 신경 쓰고 있다.

‘니 하오, 둥구’는 중국어를 배움으로써 유창한 회화를 나눌 수 있는 회원을 배출하는 것보다,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이해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란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니하오, 둥구’를 통해 중국어 회화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는 총장축제 때 이들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매년 축제기간 광주를 찾은 중국 광주시 월수구 예술단의 공연준비부터 숙소마련 등 일거수 일투족을 안내하는 ‘니하오, 둥구’의 모습을 보면서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 이들은 동구청에서 ‘중국어’로 통하게 됐다.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회계정보과 송경란(여·42)씨는 “15명 내외로 구성된 예술단이 방문할 때마다 동구청에서 ‘1대 1일 대인 방어’를 하듯 총장축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도 ‘니하오, 둥구’의 중요한 ‘연중 행사’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이러다가 중국어를 좀 할 줄 안다고 무슨 일만 생기면 ‘니하오, 둥구’회원들을 찾을까 걱정”이라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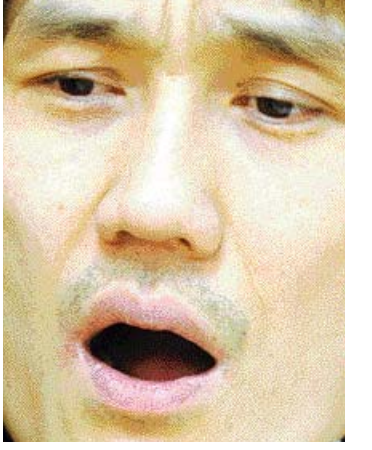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강영구(44) 계장은 “동호회를 통해 회원들이 중국과 중국어 회화에 대한 두려움에서나마 벗어났다”며 “동호회 활동으로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내 중국인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의 말벗이 돼 주는 등 봉사활동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동구청 15명 회원
매주 2차례 ‘중국어 여행’
이주 노동자 말벗 돼 주고
총장축제 찾는 관광객 맞이



광주시 동구청 중국어회화 동호회 ‘니하오, 둥구’ 회원들이 지난 1일 동구보건소 2층 재활치료실에서 회화 공부를 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근무를 마친 후 함께 모여 중국어 실력을 키우고 있다.



PMS 의치학 전문대학원
의약대 편입을 위한 최고의 선택!
= MEET/DEET/ PEET 전과목 개설 =
적중률로 주목받는 명강사 명강의 그대로. PMS 위성 LIVE강좌
약대편입 열기 6년제 약대로 이어진다

www.pms.co.kr www.kimyong.co.kr

5회 MEET & DEET 적중률 80% 합격생 10명중 7명이 김영출신

PMS·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

2010학년도 편입대비

- ★ 원리를 잡으면 답이보인다.
- ★ 편입영어 입문 및 이론과정
- ★ 문법, 독해 어휘 MT(조별토론학습)
- ★ 전대편입특별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대학편입 개강: 5월 1일

= 48년의 전통! 오랜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다!! =

7.9급 공무원 전직렬

응시자격 7.9급 일반직 약 4000여명 공채

개강 4월 1일 (주야 2회반 모집)
(현재상당원수)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062)222-4560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경찰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226-5050

※합격시스템	1년과정	순경공채	특채
6개월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교재 25% D/C	1년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교재 25% D/C	• 남- 1차: 966명 2차: 214명 • 여- 1차: 40명 2차: 47명 • 101단- 1차: 120명 2차: 120명	• 전의경 특채 240명 • 경찰 행정학과 특채 100명 • 경찰 특공대 특채 38명

※종합 1개월: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13만원 · 단과: 9만원